

사랑이라는 것....

23 년 7 개월.

그 짧은 삶의 회로애락이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날 줄 몰랐다.

한 나그네가 길을가다 하루 밤을 기거하기 위해 찾은 그 곳에 우리가 있었고, 그 나그네는 다시 그 길을 떠나갔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며 지혜를 배워나갔다. 배를 깔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내가 잠이 들면 이불을 여미며 꼭꼭 눌러 덮어 주던 것도, 동생에게 더우니까 우유에 얼음을 넣어 주는 것도. 그리고 조용히 별 요구하는 것도 없이 세월의 흐름에 맡겨 그렇게 성장하여 주었다.

엄마의 마음, 따뜻한 정성어린, 진실된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채워 주려 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들였고 또 그것이 그 아이의 기본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마냥 순수했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심금을 울리는 음악이 그렇게 탄생되어 갔다.

아빠가 빈 손으로 시작한 삶에 진정성을 부여한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요구했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고 그 아이는 그 나그네가 그 길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시작 하였다. 행복하게, 조용히 계절이 되면 무르익어 가는 과일 처럼 탐스럽고 예쁘게 자라 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익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연이 섭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이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허용해 주셨다. 우리가 행복해 할 것도, 슬퍼할 것도, 의미가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도 부여해 주셨다.

착한 차돌이로 소문난 우리 아이는 늘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왔나보다. 늘 “난 괜찮아.” 라는 말을 쓰면서 타인의 배려, 상대의 존중, 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때론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면서 사람의 도리를 마음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부정하지 않으면서 당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처럼 불의는 참을 수 없는 아픈인양 그렇게 10 대를 보낸 차돌이는 점점 그 모든 것이 “사랑이란 것”을 연습하면서 배우면서 성장을 위해, 미래를 위해, 천사가 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갔다.

우리는 늘 고마왔고 감사했다.

따뜻하고 진실되게 자라 주었고 부모에 대한 거역도 반항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항상 맑게, 밝게 웃어 주었고 또 그늘진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밝음을 주려 했다. 그것이 그 아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주님은 그 아이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세상에 보내고 계셨다. 그 아이는 맑고 순수하여 그대로 그것을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주님에게 선택된 Daniel 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처럼 자유를 위한 한 청년의 책임과 자부심을 찾기 위한 길을 나섰다. 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임무를

받아 들였다. 불평없이 당연하게, 그 거친 사막의 한 가운데서 자신의 육신을 혹사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저밑에 숨겨져 있는 것도 모르면서 항상 앞장서며 동료와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돌봐주기 위해 “난 괜찮아”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는 늘 그 한마디였다. 주먹 만해진수척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오리려 그 아이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해 여름은 왜 그리 뜨거웠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빠 난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잖아!” 하는 말에 그 아이가 왜 그리 자랑스럽고 훌륭해 보였을까? 난 해 준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성장 하였지? 난 기뻐고 돌아오면 많은 것을 주고 싶었다. 허나 Daniel 은 너무도 소박하게 “난 그런것 필요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outdoor life 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꿈이다.” 라고 했다.

그저 소박한 꿈을 지닌 아이. 그 아이는 주님과 약속시간이 다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 약속 이전에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가지씩 준비한 시간과 모습에서 그 아이는 그렇게 뜻있게, 자랑스럽게, 충실하게 준비하였나 보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아픔은 어떠하였을까? Daniel 은 자기가 떠난 후 엄마의 고통을 알고 있었을텐데. 그 엄마는 어떤 엄마였나. 모든 엄마의 진실과 사랑이 그러하듯이 우리 엄마도 누구 못지 않는 사랑과 순수의 소유자 였다. 늘 진실된 영혼의 소유자로 백지와 같은 순수의 소유자로 Daniel 이 마음껏 그 백지 위에 그림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장 시키고 돌보아 주었다.

“주님! Daniel 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픔을 기억 하시어 주님 곁에서 우리가 못다준 사랑과 보살핌을 주시어 저희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Daniel 이 떠나는 길을 축복 해 주기 위해 모였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이, 눈물이 그 시간에 모여 축복 하여 줄 수 있었을까? 그 많은 Medals 들이 말 해 주듯 너무도 훌륭하였기에, 자랑스러웠기에, 너무도 아쉬웠기에, 그리고 너무도 가슴 아프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지막 떠나는 길을 환송 하여 주었다.

나그네는 그 집을 떠났지만 또 그 길을 가기위해 다시 발걸음을 재촉 할 것이다. 우리 Daniel 도 우리집을 떠났지만 이젠 주님을 우리에게 대하듯 섬기며 다시 시작된 길을 재촉 하겠지.

휴가때면 벌떼같이 그 많은 친구들이 모여 고기와 맥주로 party 하던 그 번거로운 속에서도 터져 나오는 웃음 소리는 자신의 결정이 후회 없고 자신감과 긍지가 배여 있는 소리로 들려 왔다.

가슴이 따뜻한 아이.

유난히 동생을 사랑한 아이.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한 아이

그렇게 Daniel 은 동생을 사랑 하였다.

Esther 의 생일을 맞추어 축하해 주기 위해 Seattle 에서 16Hours 을 Motorcycle 로 달려와 surprise 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잊을 수가 없다. 동생을 위한 그 많은 선물. “너는 내가 있으니까 Spoil 되도 괜찮아.” 라고 하며 Esther 에 대한 유별난 사랑은 그날 Esther 가 악을 쓰며 절규하던 그때에 그 사랑은 증명 되듯 멈추어졌다.

Esther 의 상처!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엄마 아빠도 들리지 않게 숨을 죽이며 통곡하던 모습은 정녕 심장이 터질 듯 아파오는 고통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우리의 상처는 아물었다 터지고 또 아물면 터지고 건드리면 터질 듯 스쳐가는 모습도 스쳐간 단어들도 그 상처를 파고 들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도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우리만 덩그러이 남은채 이리저리 허공을 가르듯 덧없이 남겨져 버렸다.

언젠가 메마를 눈물이 있기에 오늘도 흘린 눈물에 감사하여진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에도 감사하여 진다. 천사가 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쓰심에 또한 감사하여진다. 그리고 언젠가 Daniel 을 볼 수 있게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게 감사하여 진다. 우리는 지금부터 Daniel 이 무엇을 원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야 겠다.

“Daniel! 아빠는, 우리는 행복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

너의 미소는 아직도 남아 내 주위를 맴돌고, 멀리있는 것이 아닌 우리곁에서 항상 모든 것에 같이 하는 것이라 믿어지고, 조금 아주 조금 먼 곳으로 이사한 것이라 믿으며, 이제 다시 시작된 사랑이라 믿어 본다.”

“Daniel! 그래도 그렇다.”

사랑하는 아빠가

10/31/2011

